

海州吳氏族圖考

鄭 在 勳

- I. 머리말
- II. 現傳經緯

- III. 構成內容
- IV. 맺음말

I. 머리말

海州吳氏族圖는 가로 112cm, 세로 115cm 크기의 壯紙 1장에 海州吳氏 1世부터 9世까지, 그리고 海州吳氏 3世, 4世, 5世와 通婚圈을 이루는 집안의 家系를 手筆로 상세히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圖版 I 參照) 그런데 한 집안의 家系 記錄이 이와 같이 族圖라는 名稱과 形式으로 現傳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그 實例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資料가 아닌가 한다.

海州吳氏族圖에 대해서는 吳希文(1539~1613)의 『瓊尾錄』¹⁾ 및 『海州吳氏甲辰譜』(1964 刊)에 각각 관련 기사와 사진이 실려있다. 그러나 그 現傳 與否가 불확실하여 그동안 記錄으로만 傳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²⁾ 그런데 1987年 7月 14日 MBC T.V 방송³⁾을 통하여 처음으로 實物이 公開 됨으로써 그 現傳과 所藏者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筆者는 이 방송을 통해 그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중 다행히

1) 『瓊尾錄』第7 宣祖 33年 庚子 5月條.

2) 鄭炳洗 『韓國族譜舊譜序集』(亞細亞文化社, 1987) p. 12 參照. 氏는 또한 海州 吳氏族圖를 刊本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3) 이날 T.V 방송이 있은 후 1987年 7月 23日 京鄉新聞에도 관계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所藏者의 협조를 얻어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를 직접 보고 分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소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本稿가 麗末 鮮初 家系 記錄의 研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귀한 資料를 열람케 해 준 所藏者에게 감사드린다.

II. 現傳經緯

記錄으로만 傳하던 海州吳氏族圖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海州吳氏族圖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意圖로 作成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일 듯 하다. 이에 대해서는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의 左側 中下端 부분에 걸쳐있는(本文內「表1」參照) 跋文이 참고된다. 그 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1. 右圖元本 先君子親自草創 未及整頓 而違世 故往往職諱 或有闕焉 至於所載職諱 亦未免一二之謬誤也 且先君子嘗謂予曰 吳氏正派 派流求源 不止於此 意其屬籍 藏在禹氏之家 姑待後日 極本窮源 而圖寫之 未就素志 遽不幸也 可勝惜哉 吾今當喪廬墓故 因其元本以圖之 無以終先君子未遂之志也 嗚呼 先君子年老眼昏 尙不憚勞神苦思 爰輯古圖 操紙執筆 度彼參此 分別內外祖宗傳世之久 使知積善之由也 其爲子孫萬世 慮至深遠也 若職諱之闕 正派之源 行乎宗族之門 遍觀屬籍 庶可以知之矣 雖不知 亦無害於此圖也

建文三年辛巳仲冬上旬四日 不孝罪人吳先敬 直夫 謹跋

A-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州吳氏族圖의 作成은 典書公 吳光廷⁴⁾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⁵⁾ 그러나 그가 當代 完結을 보지 못하고 他界 함에

4) 吳光廷에 대해서는 史書에 傳하는 記錄이 없는 듯 하다. 단지 海州吳氏族圖를 통하여, 그가 高麗朝 工曹典書를 역임하였으며, 卒年이 대략 朝鮮 太祖代임을 알 수 있을 뿐인데, 工曹의 장관인 判書가 恭愍王 18年(1369)에 典書로 개칭되었음을 볼 때,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工曹條) 고려의 멸망과 조선왕조의 건국이라는 過渡期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5) 本文中에 언급되는 海州吳氏의 家系에 대해서는 「別表」의 海州吳氏世系表를 참조할 것.

따라 그의 둘째 아들인 舍人公 吳先敬⁶⁾이 父親의 草案을 정리하여 建文 3年 즉 朝鮮 太宗 元年 A.D. 1401年 11월에 완성하고, 이 跋文을 撰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海州吳氏族圖는 父子 2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跋文에 따르면, 吳光廷이 海州吳氏族圖를 作成하려고 하였던 意圖가 後代 子孫들에게 家門의 悠久함과 그 積善한 理由⁷⁾를 알리려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海州吳氏族圖의 그 이후의 행방은 吳希文이 저술한 『瑣尾錄』의 다음의 기사로 확인된다.

A-2 始吾年少蒙暗時 先君即世 諸叔父亦皆早歿 祖宗世系直派 杳莫聞知 亦無可問之處 常以爲恨 中年竊聞先世族圖 在同姓吳公安國氏家 躬造訪問 則果有之 安國氏以其老病不出見 其子讓出待 請出圖本而見之 有一障子 大如一間壁許……遂遭壬辰之變 舉國奔波 都城蕩覆灰燼之餘 靡有子遺 意其此圖 必不保存 以其時未即傳寫爲平生一大恨 去年秋 舍弟希哲 寓在塘村先壠下 幸逢安國氏弟憲國氏子璞 居水原地者問其族圖有無 則曰 當初埋土獲全 出藏其家云(『瑣尾錄』第7 宣祖 33年 庚子 5月條)

즉 壬辰倭亂을 前後한 시기에 海州吳氏族圖는 當時 水原에 거주하고 있었던 吳光廷의 둘째 형인 吳士廉의 6代孫이자, 吳希文과는 從兄弟 사이

6) 海州吳氏族圖에 의하면 吳先敬의 高麗朝에서의 관직은 成均直學이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出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父親 吳光廷이 工曹典書였음을 볼 때, 成均直學은 아마 蔭職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朝鮮朝에 들어와서 吳先敬의 政治의 진출은 定宗 元年(1399) 丙科에 及第한 이후 太宗代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太宗 8年(1408)에 正言(『太宗實錄』 16, 8年 戊子 12月 戊子), 同 10年에 持平(同上書 19, 10年 庚寅 正月 己丑), 同 16년에는 段子織造色 別監(同上書 31, 16年 丙申 5月 己亥)을, 그리고 世宗 元年(1419)에는 軍資正으로서 柳廷顯의 對馬島征伐 從事官(『世宗實錄』 4, 元年 己亥 5月 甲子)을 거치고, 同 2년에는 舍人(同上書 10, 2年 庚子 12月 乙未) 등을 역임하였다.

7) 이와 같은 표현이 『文化柳氏嘉靖譜』內의 『永樂譜』序에도 나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或曰 文化柳氏後嗣之蕃 左尹公敎□活命 陰德使然也 愚則以爲 易曰 積善之家 必有多慶 其曰 積者非一鮮一事之謂也 自古顯當世 而享大名者 非不多 然其子孫繼繼縣縣 不失家業 以至數□年之久者』가 그것이다.

인 吳安國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를 所藏하고 있는 분은 吳光廷의 첫째 아들인 吳善敏(先敏)의 18代孫인 吳瓌煥氏이다. 현재 釜山에 居住하고 있는 이 분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作故하였지만, 慶尙南道 咸陽郡 安義面에 居住하였던 그의 祖父 때 이미 家內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뒤 그의 父親을 거쳐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海州吳氏族圖가 現傳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理由 때문이다. 첫째,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의 No.3 (本文內「表 1」參照)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의 內容이 No.2, No.4, No.5, No.6, No.7, No.8의 內容에 비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No.3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그 內容중 海州吳氏의 家系가 9世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No.3는 10世 이후 14世까지도 記錄되어 있기 때문이다.⁹⁾ 둘째, No.3는 또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 筆體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圖版 II 參照)

8) 海州吳氏族圖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된 곳이 1964년에 刊行된 『海州吳氏甲辰譜』인데, 이때의 소장자가 吳瓌煥氏의 祖父인 吳聖泳氏이다. 그리고 1977년 『海州吳氏世譜』乾·坤 2冊을 刊行할 때도 乾編에 사진을 실었는데 그 당시는 吳瓌煥氏의 父親인 吳自根氏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吳瓌煥氏는 현재 海州吳氏族圖뿐만 아니고 海州吳氏의 族譜를 비롯하여 敎旨, 戶口單子, 田畓文記 등 각종의 古文書類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그의 祖父代부터 소장되어온 것이나, 그 이전의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9)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를 보면, No.3에 記錄되어 있는 13世와 14世의 판독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다. 때문에 No.3의 內容을 이루는 10世부터 14世까지를 海州吳氏族圖와 『海州吳氏世譜』를 바탕으로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吳軸					
吳輪	子郡守舜從				
	子郡守戒從	子左通禮賢卿	子左丞旨慶雲	壽千一	正邦
				壽儼	定邦
					定邦

海州吳氏族圖의 內容을 보면, 子女(壻)를 男女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女(壻)를 제외한 直系 子孫만을 기록함으로써 14·5C와 17C의 가계 기록의 차이를 엿보게 해 준다.

한편 『瑣尾錄』의 다음과 같은 기사는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가 1401年 吳先敬에 의해서 作成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A-3 去年秋 舍弟希哲 寓在塘村先壠下 幸逢安國氏弟憲國氏子璣 居水原地者 問其族圖有無 則曰當初埋土獲全 出藏其家云 余聞來庶有得見之路 喜不自勝 今年春初二男允諧適以事往廣州農村 去水原不遠 故令其就見傳書 而果即使人取圖而來 一一依本傳錄……萬曆庚子仲夏端陽 在平康西村寓家 書之(同上書)

A-3에 의하면, 萬曆 庚子年(宣祖 33, 1600) 봄 吳希文이 그의 둘째 아들인 吳允諧(1562~1629)에게 當時 水原 吳安國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1401年 吳先敬 作成의 海州吳氏族圖를 빌려다가 한부 더 筆寫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가 吳先敬이 1401년에 作成한 것인지 아니면 吳允諧에 의해서 1600年 다시 筆寫한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먼저 No.3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添錄된 것이 분명하다.¹⁰⁾ 그리고 그 添錄은 13世인 吳壽千(1516~1586), 吳壽億(1519~1593) 또는 14世인 吳正邦, 吳定邦(1552~1625)代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12世인 吳慶雲(?~1525)代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吳慶雲이 吳定邦의 出生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그 添錄時期를, 吳壽億과 吳定邦의 生沒年代에 근거하여, 吳允諧가 1401年의 海州吳氏族圖를 다시 筆寫한 1600年을 기준으로 먼저 그 이전으로 볼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1600年 吳允諧가 1401年의 海州吳氏族圖를 다시 筆寫할 때 No.3를 포함한 내용 전체를 동일한 筆體로 筆寫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오늘날 傳하는 海州吳氏族圖라면 No.3와 같이 筆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

10) 그 이유는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吳壽千과 吳壽億, 그리고 吳定邦의 生存時期가 吳先敬(1374~1420年代頃)과 100여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 그렇지 않고 1600年 이후로 볼 경우, No.3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海州吳氏族圖가 한부 더 탄생하게 된다.

끝으로 1600年 이후 13世 또는 14世가 No.3의 내용을 添錄하였다면 그 海州吳氏族圖가 1401年 吳先敬이 作成한 것인지 아니면 1600年 吳允諧가 다시 筆寫한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瓊尾錄』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참고될 것 같다.

A-4 因使允諧 廣求高祖進士以下子孫支派・內外世孫 無使遺落 一一載錄 成爲一冊(同上書)

A-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吳希文은 1600年 吳允諧에게 그의 高祖父 이하 子孫支派・內外世孫을 널리 구하게 하여 이를 일일이 싣고 한권의 冊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 吳希文이 그의 高祖父 이하 子孫支派・內外世孫을 「一一載錄」케 하였다면, 그것은 1600年の 것에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吳希文이 자신의 高祖父 이하를 「一一載錄」하였다고 했는데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의 No.3의 內容처럼 그 자신의 直系 祖上을 제외한 채, 支派의 祖上 만을 添錄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1401年 吳先敬이 作成한 海州吳氏族圖에 No.3와 같은 內容이 添錄되어진 것으로 믿어진다.¹¹⁾

이와 같이 海州吳氏族圖는 1401年 吳先敬에 의해 作成된 이후 現傳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내용이 添錄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4·5C와 17C의 家系 記錄의 차이¹²⁾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1) 現傳하는 海州吳氏族圖의 紙質이 14·5C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점(東亞大學校 博物館 資料課長 李容琰氏 敎示)도 그 作成年代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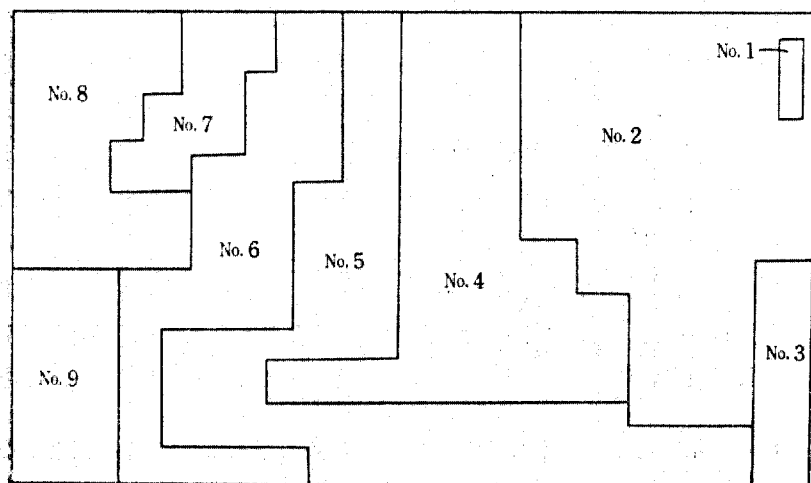
12) 註9 參照.

Ⅲ. 構成內容

海州吳氏族圖는 한장의 壯紙에 表題와 跋文 그리고 海州吳氏의 家系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通婚圈을 맺어 內外家系을 이루는 人物의 家系까지를 망라한 내용으로 構成되어 있다. 때문에 그 내용을 한꺼번에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筆者는 海州吳氏族圖를 구성 내용 별로 表 1과 같이 먼저 영역을 나누어서 그 각각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海州吳氏族圖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코자 하였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州吳氏族圖는 모두 9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海州吳氏 家系는 No.4이며, 그와 관련되는 집안은 No.2, No.5, No.6, No.7, No.8이다. 그리고 No.1, No.9, No.3는 각각 表題, 跋文, 添錄 內容을 담고 있다.

「表 1」 海州吳氏族圖의 構成



그중에서 먼저 No.1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表題로서 가로 5cm, 세로 33cm 크기의 韓紙가 붙어있다. 거기에는 세로로 海州吳氏族圖라는 題目과 그 밑에 2줄로(典書公諱光廷草創 舍人公諱先毅圖寫)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表記하고 있다. 이 韓紙를 떼어보면 그 바탕에는 아무런 글자도 쓰여져 있지않다. 附着 時期와 作成者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붙여진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¹³⁾

이와 같은 점은 海州吳氏族圖의 作成 당시에는 表題를 쓰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작성 당시에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다음의 『瓊尾錄』 기사가 참고된다. 즉,

「始吾年少蒙暗時 先君即世 諸叔父亦皆早歿 祖宗世系直派 杳莫聞知 亦無可問之處 常以爲恨 中年竊聞先世族圖」(『瓊尾錄』 第 7 宜祖 33年 庚子 5月條)

라고 한 바와 같이, 吳希文(1539~1613)이 中年에 先世의 族圖가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작성 당시 表題를 써 두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族圖 또는 海州吳氏族圖라고 불려졌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No.9는 吳先敬이 撰한 跋文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그 全文을 소개한 바 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내에 부분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아울러 No.3도 앞에서 詳述한 바 있으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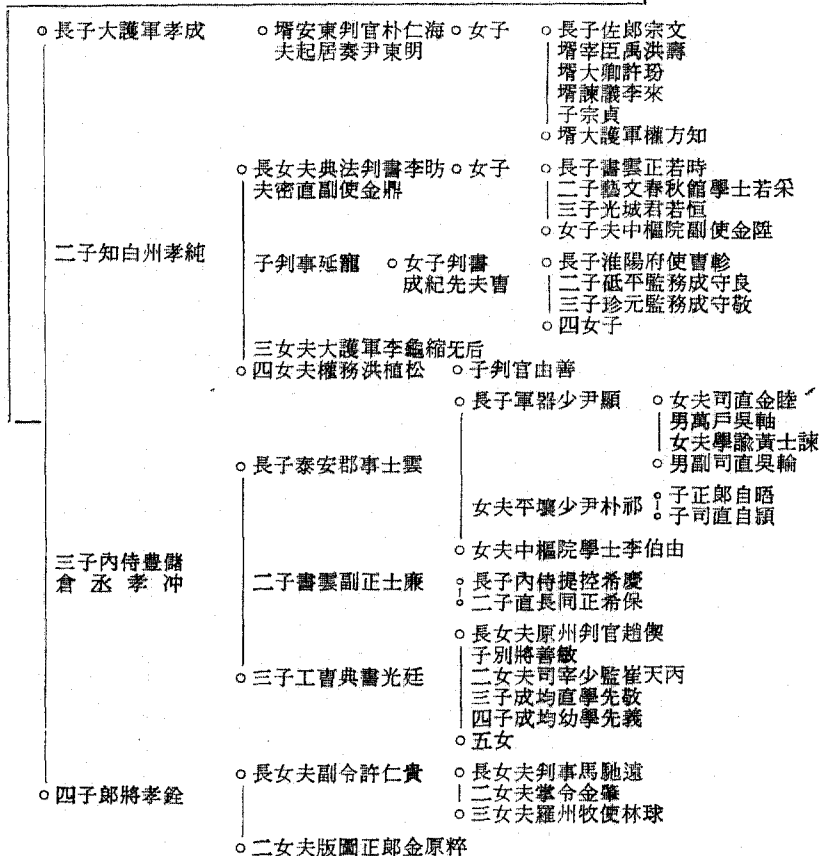
이상의 No.1, No.9, No.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海州吳氏 및 그와 通婚圈을 맺은 家系로 먼저 No.4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의 「表 2」와 같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4는 檢校軍器監 吳仁裕로부터 그의 8代孫인 萬戶 吳軸과 副司直 吳輪까지의 海州吳氏家系이다. 海州吳氏族譜에 의하면, 吳仁裕 및 吳軸과 吳輪은 海州吳氏 1世와 9世에 해당된다. 따라

13) 韓紙의 紙質과 書體가 나머지 부분과 매우 다른 것으로 보아 아마 近來에 붙여진 듯하다.

「表 2」 No.4 構成内容

檢校軍器監吳仁裕本海州 ○子內庫副使周裔 ○子秘書監民政 ○子檢校尚書左僕射行大子詹事札 ○子追封中正大夫典客令東大慈院錄事昇一



서 No.4는 海州吳氏 1世부터 9世까지의 家系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吳先敬은 海州吳氏族圖 跋文에서 海州吳氏의 先系를 吳仁裕로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且先君子嘗謂予曰 吳氏正派 汭流求源 不止於此 意其屬籍 藏在禹氏之家 姑待後

日 極本窮源 圖而寫之 未就素志 遽不幸也 可勝惜哉 吾今當衰廬墓故 因其元本以圖之 無以終先君子未遂之志也」

즉 吳仁裕 이전의 先系가 記錄되어 있는 屬籍이 있었으나 그것이 禹氏 집안에 所藏되어 있는 관계로¹⁴⁾ 미처 확인을 못하고 作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뒤 吳仁裕는 1634年 海州吳氏族譜로서는 처음으로 刊行되는 『海州吳氏甲戌譜』에도 海州吳氏의 始祖로 記錄된다. 이는 『海州吳氏甲戌譜』가 다름아닌 海州吳氏族圖를 기본 자료로 하여 刊行되었기 때문인 것이다.¹⁵⁾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海州吳氏族圖는 族譜가 보편화되기 전에 家系를 어떤 方法과 形式으로 記錄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 海州吳氏族圖가 갖는 資料的 意義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의 「表 2」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表 2-1」과 같다.

「表 2-1」 No. 4의 個人別整理

番號	人 名	本貫	官 職	家 系	備 考
1	吳仁裕	海州	檢校軍器監	吳仁裕의 子 吳周裔의 子, 蔡椿의 女婿	檢校尙書左僕射行太子詹事(『高麗史』)
2	吳周裔	〃	內庫副使		
3	吳民政	〃	秘書監		
4	吳 札	〃	檢校尙書左僕射行太子詹事	吳民政의 子, 崔執圭의 女婿	
5	吳 昇	〃	追封中正大夫典客寺令東大悲院錄事	吳札의 子, 金信祐의 女婿	

14) 屬籍의 辭典의 意味는 戶籍, 宗族의 名籍, 圖譜를 붙인 것(諸稿敝次『大漢和辭典』參照)등이라고 하나, 이 경우도 그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屬籍이 禹氏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는 짐작할 만 하다. 海州吳氏族圖의 전체 내용을 통해 볼 때, 海州吳氏와 관련된 禹氏는 丹陽禹氏 禹賢寶의 아들인 禹洪壽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禹氏 집안이란 丹陽禹氏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禹洪壽는 「表 2」에서 보듯이 尹東明의 女婿이고 尹東明은 朴仁海의 女婿인데 朴仁海가 吳孝成의 女婿인 관계로 결국은 海州吳氏와 丹陽禹氏가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婚戚關係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海州吳氏의 屬籍이 丹陽禹氏의 집안에 소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 『瑣尾錄』第7 宣祖 33年 庚子 5月條 및 『海州吳氏世譜』乾編「甲戌譜跋」參照.

6	吳孝成	"	大護軍	吳昇의 長子	起居注(『高麗史』)
7	朴仁海		安東判官	吳孝成의 女婿	
8	尹東明	茂松	起居奏	朴仁海의 "	
9	宗文	"	佐郎	尹東明의 長子	
10	禹洪壽	丹陽	宰臣	" 女婿	
11	許 玢	孔岩	大卿	" "	
12	李 來	慶州	諫議	" "	
13	尹宗貞	茂松		" 子	
14	權方祐		大護軍	" 女婿	
15	吳孝純	海州	知白州	吳昇의 二子	
16	李 昉	延安	典法判書	孝純의 長女婿	無后
17	金 鼎	光州	密直副使	李昉의 女婿	
18	金若時	"	書雲正	金鼎의 長子	
19	金若采	"	藝文春秋館學士	" 二子	
20	金若恒	"	光城君	" 三子	
21	金 陞	安東	中樞院副使	" 女婿	
22	吳延寵	海州	判事	吳孝純의 子	
23	曹			吳延寵의 女先婿	
24	成 紀	昌寧	判書	" 女婿	
25	曹 軫		淮陽府使	" 의 女先婿 (23)의 子	
26	成守良	昌寧	砥平監務	成紀의 二子	洪田善(『海州吳氏世譜』)
27	成守敬	"	珍元監務	" 三子	
28		"		" 四女	
29	李龜縮		大護軍	吳孝純의 三女婿	
30	洪植松		權務	吳孝純의 四女婿	
31	洪由善		判事	洪植松의 子	
32	吳孝冲	海州	內侍豐儲倉丞	吳昇의 三子	
33	吳士雲	"	泰安郡事	吳孝冲의 長子	
34	吳 願	"	軍器少尹	吳士雲의 長子	
35	金 睦		司直	吳願의 女婿	
36	吳 軸	海州	萬戶	" 子	黃士幹(『海州吳氏世譜』)
37	黃士諫	尙州	學諫	" 女婿	
38	吳 輪	海州	副司直	" 子	
39	朴 祁	竹山	平壤少尹	吳士雲의 女婿	
40	朴自晤	"	正郎	朴祁의 子	
41	朴自穎	"	司直	"	

42	李伯由	全州	中樞學士	吳士雲의 女壻	海州吳氏族圖草案 著
43	吳士廉	海州	書雲副正	吳孝冲의 二子	
44	吳孝慶	"	內侍提控	吳士廉의 長子	
45	吳孝保	"	直長同正	" 二子	
46	吳光廷	"	工曹典書	吳孝冲의 三子	
47	趙 悞		原州判官	吳光廷의 長女壻	海州吳氏族圖完成 著
48	吳善敏	海州	別長	" 子	
49	崔天丙	江華	司宰少監	" 二女壻	
50	吳先敬	海州	成均直學	" 三子	
51	吳先義	"	成均幼學	" 四子	
52		"		" 五女	
53	吳孝銓	海州	郎將	吳昇의 四子	
54	許仁貴		副令	吳孝銓의 長女壻	
55	馬馳遠	木川	判事	許仁貴의 長女壻	
56	金 肇		掌令	" 二女壻	
57	林 球	鎭川	羅州牧使	" 三女壻	
58	金原粹		版圖正郎	吳孝銓의 二女壻	

한편 위의 「表 2」에 보이는 秘書監 吳民政(3世), 檢校尙書左僕射行大(太)子詹事 吳札(4世), 東大悲院錄事 吳昇(5世)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通婚關係를 이루는 人物들의 家系가 No. 2, No. 5, No. 6, No. 7, No. 8 이라 하겠다.

먼저 No. 2는 다음의 「表 3」과 같다.

「表 3」에서 보듯이 No. 2는 守大(太)師中書令 任元厚 집안의 家系로 吳仁裕의 曾孫인 吳札과 玄孫인 吳昇이 이와 관련이 있다. 吳札의 경우 任元厚의 外孫子인 承宣 崔光裕가 吳札의 장인인 員外郎 崔執圭의 妻父이다. 그리고 吳昇은 樞密院副使 崔允愷의 女壻인 禮部侍郎 金信祐의 女壻인데, 崔允愷의 妻가 任元厚의 아들인 門下平章事 任儒(濡)의 둘째 딸이 되기 때문에 任元厚의 家系가 記錄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No. 2에는 이와 아울러 任元厚의 큰딸 및 세아들의 後孫과 그들의 婚戚關係까지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¹⁶⁾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 記錄된

16) No. 2에는 先系の 表記가 확실치 않은 人物이 記錄되어 있다. (「表 3」 參照)

「表 3」No. 2 構成内容

守大師中書令贈諡文中公任元厚本長與府

。女子夫平章事崔暹	。子丞宣光裕。女子夫員外郎崔執圭。女子夫太子詹事吳杞。子昇(이)하同NO. 4)
。長子門下平章事景肅 女子夫侍中金起孫	。長女夫將軍禮部侍郎金信祐。女子夫錄事吳昇(이)하同NO. 4) 。二女子夫樞密院副使崔允愷 。子判通禮門事崔肇 。子考功正郎肇 。子宰臣守全 。女夫政堂?天祐 。長子判書由仁 。二子寺丞由儉 。典書潛
子門下平章事儒	。四子樞密院副使孝順 。女子夫門下平章事崔凝 。子郎將崔
五子同知樞密院事景謙	。長子刑部侍郎玆 。二子內侍別監翊 。女子夫內侍郎將林惟幹
。六子判司宰寺事景珣	。女子夫郎將奇洪穎 。子親從將軍奇溫
。二子工部尙書克正 。長子閤門祗候瑀	。長子員外郎典 。二子丞宣陸 。女子夫掖庭內侍伯金英烈。子都評議錄顯 。大司成李伯乾 。由信 。由智 。由禮 。由義
長女子恭肅太后 。子仁宗大王	。長子毅宗大王 。二子大寧侯暉 。三子明宗大王 。長子康宗大王 。二子高宗大王 。子元宗大王。子忠烈王。子大尉王 。子忠肅王。子恭愍王
。二子員外郎壽弘 。長子京市丞周補	。四子元敬國師冲曦 。長子貞宗大王 。二子襄陽公 。子權務王青 。二女夫右正言林桂 。長女夫侍御史李穎

부분이 발견된다.¹⁷⁾ 즉 仁宗이 任元厚의 長女인 恭睿大(太)后의 아들로, 그리고 高宗이 明宗의 둘째 아들로, 각각 表記되어 있다는 점이다. 『高麗史』에 의하면 恭睿大(太)后의 경우, 仁宗의 妃로서 毅宗, 大寧侯 暉, 明宗, 元敬國師 冲曦, 神宗 등을 낳았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高宗은 康宗의 元子이기 때문이다.¹⁹⁾

특히 No. 2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子女(壻)를 表記함에 있어서의 形式이다. No. 4, No. 5, No. 6, No. 7, No. 8은 子女(壻)를 表記 함에 있어서 모두 男女를 구분하지 않고 出生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No. 2는 몇몇 例를 제외하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表記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에 비해 2가지 表記 形式이 混在해 있음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任元厚 집안의 家系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表 3」을 다시 정리하면 「表 3-1」과 같다.

「表 3-1」 No. 2의 個人別整理

番號	人 名	本貫	官 職	家 系	備 考
1	任 元 厚	定安	守太師中書令	任元厚의 長子 任冲의 〃 任周補의 長女壻	守太師中書令 (『高麗史』)
2	任 冲	〃	禮 部 侍 郎		
3	任 周 補	〃	京 市 丞		
4	李 穎	慶源	侍 御 史		

이중 許乾이 孔岩許氏 許僑의 아들이라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朴龍雲「高麗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岩許氏 家門分析」『韓國史論叢』3, 1978)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筆者의 과묵한 탓으로 그 先系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 17) 이외에도 海州吳氏族圖의 내용 가운데는 몇군데 더 誤記와 闕字가 있음이 발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跋文內의 「先君子親自草創 未及整頓而違世 故往往職諱 或有闕焉 至於所載職諱 亦未免一二謬誤也」라는 내용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表 2-1, 3-1, 4-1, 5-1」의 備考欄에 典據와 함께 修正과 補完을 해 두었다.

18) 『高麗史』 88 列傳 1 后妃傳.

19) 同上書 22 世家 22 高宗.

5	林 桂		右 正 言	" 二女婿	
6	任 壽 弘	定安	員 外 郎	任冲의 二子	
7	任 壬 壽	"	權 務	任壽弘의 子	
8	恭肅太后			任元厚의 長女	恭肅太后(『高麗史』)
9	仁宗大王			恭肅太后의 子	恭肅太后의 夫(『高麗史』)
10	毅宗大王			仁宗大王의 長子	
11	大寧侯暉			" 二子	
12	明宗大王			" 三子	
13	康宗大王			明宗大王의 長子	
14	高宗大王			" 二子	康宗의 元子(『高麗史』)
15	元宗大王			高宗大王의 子	
16	忠 烈 王			元宗大王의 子, 順敬太后의 子	
17	大 尉 王			忠烈王의 子	太尉王(『高麗史』)
18	忠 肅 王			大尉王의 子	
19	恭 愍 王			忠肅王의 子	
20	冲 曦			仁宗大王의 四子	
21	神宗大王			" 五子	
22	貞宗大王			神宗大王의 長子	熙宗(『高麗史』)
23	襄 陽 公			" 二子	
24	任 克 正	定安	工 部 尚 書	任元厚의 二子	
25	任 瑀	"	閣 門 祇 候	任克正의 長子	
26	任 益 敦	"	判 禮 賓 事	" 二子	任益惇(『定安任氏世譜』)
27	任 典	"	員 外 郎	任益敦의 長子	
28	任 睦	"	丞 宣	" 二子	
29	任 資 保	"	內 侍 郎 將	任 睦의 子	
30	金 英 烈	義城	掖庭內侍伯	" 의 女婿	佐命功臣
31	金 顯	"	都 評 議 錄	金英烈의 子	
32	鄭 淳	延日	都 官 郎 中	任益敦의 女婿	
33	任 儒	定安	門下平章事	任元厚의 子	任濡(『定安任氏世譜』)
34	任 景 肅	"	"	任儒의 子	
35	金 起 孫	慶州	門 下 侍 中	任儒의 女婿, 金台瑞의 二子, 奇弼善의 女婿	
36	崔 允 愷	全州	樞密院副使	" 의 二女婿	
37	金 信 祐	慶州	禮 部 侍 郎	崔允愷의 長女婿, 金起孫의 子	
38	崔 肇	全州	判通禮門事	" 子	
39	崔 守 全	"	宰 臣	崔肇의 子	
40	? 天 祐		政 堂	崔守全의 女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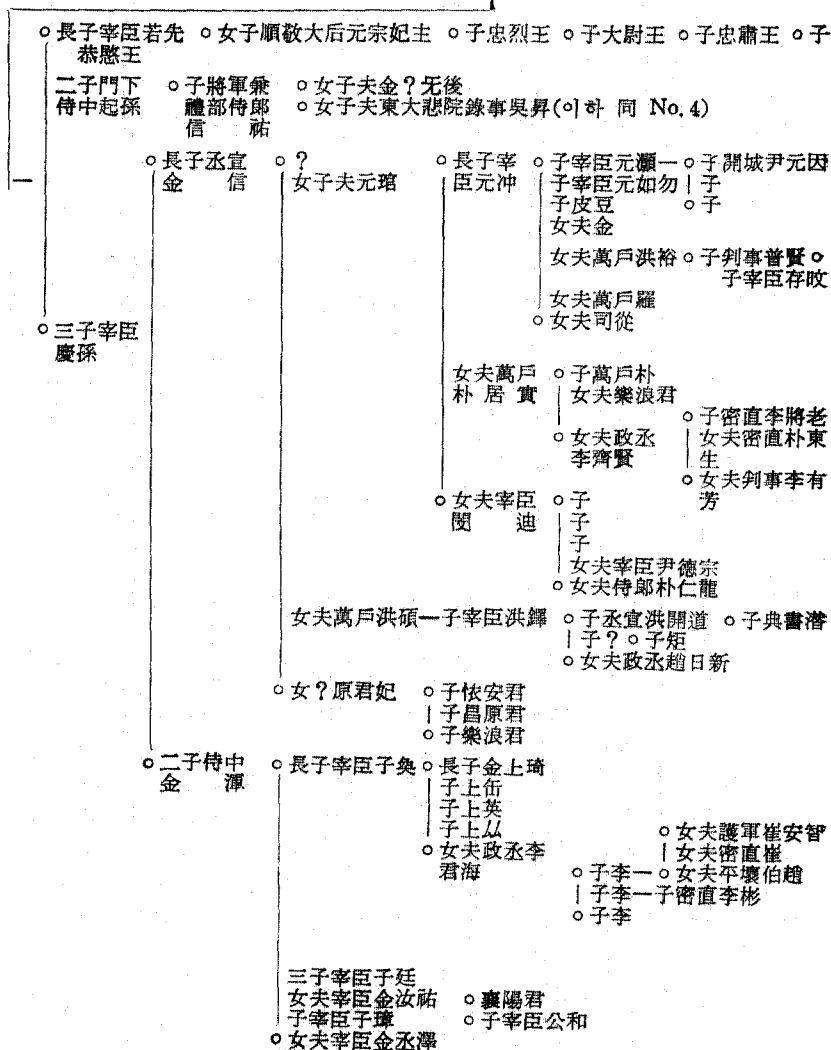
41	崔 馨	全州	考 功 正 郎	崔允愷의 子	
42	任 孝 順	定安	樞密院 副使	任儒의 四子	
43	崔 凝	土山	門下平章事	任孝順의 女壻	
44	崔	"	郎 將	崔凝의 子	
45	任 景 謙	定安	同知樞密院事	任儒의 五子	
46	任 竑	"	刑 部 侍 郎	任景謙의 長子	
47	任 翊	"	內 侍 別 監	" 二子	
48	林 惟 幹		內 侍 郎 將	" 女壻	
49	任 景 珣	定安	判司宰寺事	任儒의 六子	
50	奇 洪 穎	幸州	郎 將	任景珣의 女壻	
51	奇 蕙	"	親 從 將 軍	奇洪穎의 子	奇蕙(『韓國人の 族譜』)
52	崔 瑞	稷山	平 章 事	任元厚의 女壻	
53	崔 光 裕	"	丞 宣	崔瑞의 子	
54	崔 執 圭	水原	員 外 郎	崔光裕의 女壻, 崔敦義의 子	
55	吳 舜 從	海州	郡 守	吳輪의 子	添錄
56	吳 戒 從	"	"	" 子	"
57	吳 賢 卿	"	左 通 禮	吳戒從의 子	"
58	吳 慶 雲	"	左 承 旨	吳賢卿의 子	"
59	吳 壽 千	"		吳慶雲의 子	"
60	吳 壽 億	"		" 子	"
61	吳 正 邦	"		吳壽億의 子	"
62	吳 定 邦	"		" 子	"
63	由仁			判書	先系未詳
64	由儉			寺丞	"
65	潛			典書	"
66	由義				"
67	由禮				"
68	由智				"
69	由信				"
70	許 乾	孔岩			"
71	李 伯 之			大司成	"

다음으로 No.5인데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하면 「表 4」와 같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5는 禮部侍郎 金信祐의 家系를 그의 曾祖父인 門下平章事 金鳳毛로부터 記錄한 것이다. 吳昇이 金信祐의 女壻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No.5 역시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表 4」 No 5 構成内容

門下平章事金鳳毛本慶州 ○ 子門下平章事台瑞一



吳昇 이후의 그 子孫들은 No. 4의 내용 그대로 중복하여 수록하였다.²⁰⁾ 그리고 그중에서 다른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禹洪壽의 子女(婿)에 대한 소개가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눈에 띈다.²¹⁾

한편 No. 5를 No. 2와 관련하여 보면, No. 2에서 任儒(濡)의 女婿로만 기록되어 있는 金起孫의 家系라든지, 또는 No. 2의 元宗이 門下平章事 金台瑞의 長子인 宰臣 金若先의 女婿라는 사실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게 해 준다. No. 5는 海州吳氏가 慶州金氏와 婚戚關係를 맺고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慶州金氏家의 通婚關係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에서는 No. 2와 같은 形式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를 정리하면 「表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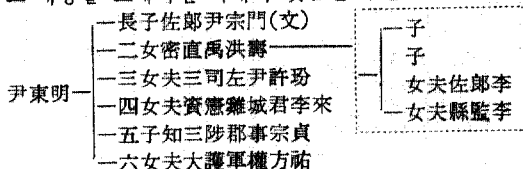
「表 4-1」 No. 5의 個人別整理

番號	人名	本貫	官 職	家 系	備 考
1	金 鳳 毛	慶州	門下平章事		
2	金 台 瑞	"	"	金鳳毛의 子, 閔湜의 女婿	
3	金 若 先	"	宰 臣	金台瑞의 長子	

- 20) 海州吳氏族圖가 海州吳氏를 중심으로 작성된 관계로 대부분마다 吳昇代 이후의 子女(婿)를 중복하여 기록하였다. 때문에 筆者로서는 表를 작성함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해주오씨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 No. 4(「表 2」)를 제외하고 나머지 No. 2, No. 5, No. 6, No. 7, No. 8에서의 吳昇代 이후는 모두 생략하였다. 表 3, 4, 5에서 吳昇 이후를(이하 同 No. 4)라고 표시한 것이 그것을 말함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表 2」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리고 吳昇代 이후의 子女(婿)에 대한 생략은 「表 3-1, 4-1, 5-1」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역시 「表 2-1」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밝혀 둘 것은, 圖版 I을 보면 알 수 있듯이, 海州吳氏族圖內의 家系는 모두 縱書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No. 2의 任元厚의 家系만 縱書로 하고, 나머지는 橫書로 표시하였다.

- 21) 그 내용을 소개하던 아래의 빗금친 부분이다.



『丹陽禹氏世譜』에 의하면 禹洪壽의 두 아들은 成範과 承範이다.

4	順敬太后	"	元宗妃主	金若先의 女	順敬太后(『高麗史』)
5	金 ?			金信祐의 女婿	无後
6		丹陽		禹洪壽의 子	禹成範(本文註 21參照)
7		"		" 子	禹承範(")
8	李		佐郎	" 女婿	
9	李		縣監	" 女婿	
10	金慶孫	慶州	宰臣	金台瑞의 三子	
11	金信	"	丞宣	金慶孫의 長子	
12	?		尙書	金信의 ?	
13	元瑄	原州		"의 女婿	元瑄(『韓國人의 族譜』)
14	冲	"	宰臣	元瑄의 長子	元忠(")
15	灝	"	"	元冲의 子	元灝(")
16	因	"	開城尹	元灝의 子	元寅(")
17		"		" 子	
18		"		" 子	
19	如勿	"	宰臣	元冲의 子	
20	皮豆	"		" 子	
21	金	光州		" 女婿	金英利(『萬姓大同譜』)
22	洪裕	南陽	萬戶	" 女婿	洪瑜(『南陽洪氏世譜』)
23	洪普賢	"	判事	洪裕의 子	
24	洪存政	"	宰臣	洪普賢의 子	
25	羅	羅州	萬戶	元冲의 女	羅英傑(『羅州羅氏世譜』)
26			司徒	" 女婿	
27	朴居實	春州	萬戶	元瑄의 女婿	
28	朴	"	"	朴居實의 子	
29	樂浪君			" 女婿	
30	李齊賢	慶州	政丞	" 女婿	
31	將老	"	密直	李齊賢의 子	李彰路(『萬姓大同譜』)
32	朴東生		"	" 女婿	
33	李有芳		判事	" 女婿	
34	閔迪	黃驪	宰臣	元瑄의 女婿	
35		"		閔迪의 子	
36		"		" 子	
37		"		" 子	
38	尹係宗		宰臣	" 女婿	
39	朴仁龍	竹山	侍郎	" 女婿	
40	洪碩	南陽	萬戶	金信의 女婿	

41	鐸	"	宰	臣	洪 碩의 子	
42	開道	"	丞	宣	洪 鐸의 子	
43	潛	"	典	書	洪開道の 子	
44		"			洪鐸의 子	
45	矩	"			"의 子(44)의 子	
46	趙 日 新		政	丞	" 女婿	
47	? 原君妃				金 信의 女	
48	依 安 君				? 原君妃의 子	
49	昌 原 君				"	
50	樂 浪 君				"	
51	金 渾	慶州	侍	中	金慶孫의 二子	金渾(『慶州金氏世譜』)
52	子 奂	"	宰	臣	金 渾의 長子	金子興(")
53	上 琦	"			金子奂의 長子	
54	上 缶	"			" 子	金上璐(")
55	上 英	"			" 子	
56	上 从	"			" 子	金上璘(")
57	李 君 海	陽城	政	丞	" 女婿	李邦海(《萬姓大同譜》)
58	李				李君海의 子	
59	崔 安 智		護	軍	" 子 (58)의 女婿	
60	崔		密	直	" 子 (58)의 女	
61	趙		平	壤 伯	" 子 (58)의 女婿	
62	李				" 子	
63	李 彬				" 子 (62)의 子	
64	李				" "	
65	金 子 延	慶州	宰	臣	金 渾의 三子	
66	金 汝 祐		"		" 女婿	
67	襄 陽 君				金汝祐의 ?	
68	金 子 璋	慶州	宰	臣	金渾의 子	
69	公 和	"	"		金子璋의 子	
70	金 承 澤	安東	"		金渾의 女婿	

끝으로 다른 부분의 家系에 비해 간략히 記錄되어 있는 No. 6, No. 7, No. 8을 편의상 묶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表 5」와 같다.

「表 5」 No. 6, No. 7, No. 8 構成內容

No. 6.

國子祭酒 崔婁伯 ◦ 子大倉晝 丞教義 ◦ 子員外 郎執圭 ◦ 女夫大子 詹事吳札 ◦ 錄事昇(이 하同 No. 4)

No. 7.

禮賓卿 閔志寧 ◦ 婿宰臣 閔 湜 ◦ 子命華 ◦ ? ◦ 子清 ◦ 子祥正 ◦ 子侍中起孫 ◦ 子將軍禮部侍郎信祐 ◦ 女夫錄事吳昇(이 하同 No. 4)
◦ 婿員外 郎蔡椿 ◦ 婿秘書監 吳民政 ◦ 子大子 詹事札 ◦ 子錄事昇(이 하同 No. 4)

No. 8.

宰臣 奇守 全本幸州 ◦ 子上將 軍弼宣 ◦ 婿侍中 金起孫 ◦ 子將軍禮部 侍郎信祐 ◦ 婿錄事吳昇(이 하同 No. 4)

「表 5」에서 먼저 No. 6은 國子祭酒 崔婁伯의 家系이다. 吳仁裕의 曾孫인 吳札이 崔婁伯의 孫子인 崔執圭의 女婿이기 때문에 記錄된 것이라 생각된다.

No. 7은 禮賓卿 閔志寧의 女婿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吳仁裕의 孫子인 吳民政이 閔志寧의 女婿인 蔡椿의 女婿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No. 5에 나오는 金台瑞가 閔志寧의 女婿중 한사람인 閔湜의 女婿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나머지 No. 8은 宰臣 奇守全의 家系이다. 奇守全의 집안이 記錄된 것은 金台瑞의 둘째 아들이자 金信祐의 父親인 金起孫이 奇守全의 아들인 奇弼宣의 女婿이기 때문이다.²²⁾ 그러나 실제로는 吳昇이 金起孫의 아들인 金信祐의 女婿이기 때문에 金起孫의 婚戚關係를 소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表 5-1」과 같다.

「表 5-1」 No. 6, No. 7, No. 8의 個人別整理

番號	人名	本貫	官 職	家 系	備 考
1	崔婁伯	水原	國子祭酒		
2	崔教義	〃	大倉晝丞	崔婁伯의 子	

22) 金起孫은 「表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任元厚의 아들인 任儒(濡)의 女婿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시 奇弼宣의 女婿로 기록된 점으로 보아 再娶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海州吳氏族圖가 띠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정면 중앙 부분에 海州吳氏의 家系를, 그리고 그 좌우에는 그들과 通婚圈을 이루는 집안의 家系를 배치하여 海州吳氏와 직접적으로 婚戚關係를 맺은 집안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겹겹사돈의 婚戚關係까지도 모두 밝히고 있다. 둘째, 吳民政, 吳札, 吳昇代까지는 妻家の 先系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반면에 그 이후는 子와 女(壻)만을 소개하였다. 셋째, 吳昇代 이후의 子와 女(壻)를 通婚家에 매년 중복하여 기록하였다. 네째, 海州吳氏는 물론 그 通婚家의 先祖와 子孫 및 女(壻)의 官職까지도 상세히 表記하였다. 다섯째, 子女(壻)를 男女 구분하지 않고 出生 순서대로 表記하였으며 親孫과 外孫을 모두 기록하였다는 점 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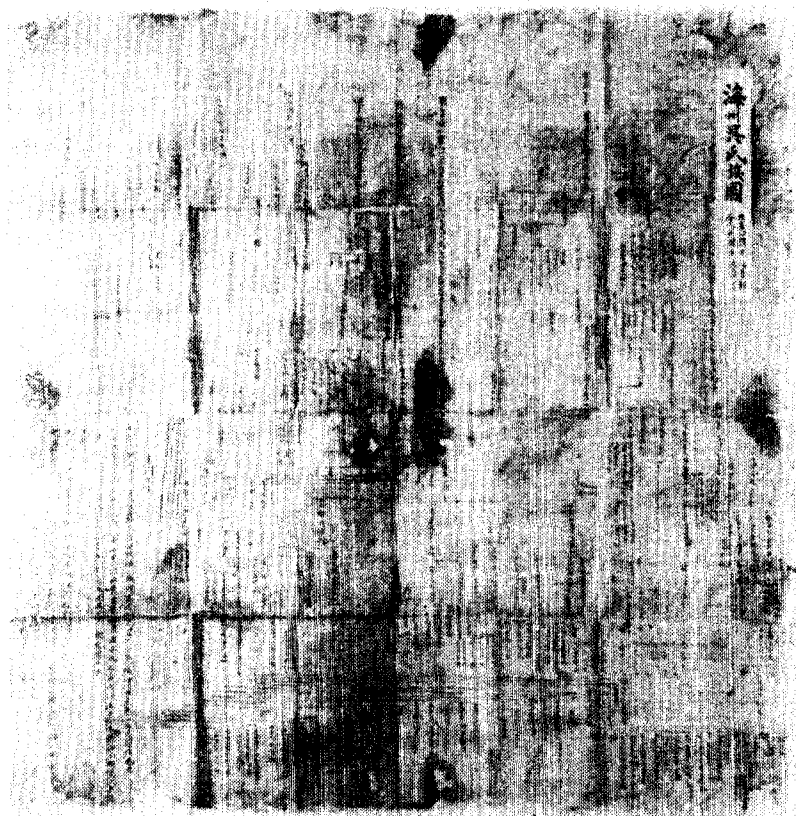
Ⅳ. 맺음말

지금까지 筆者는 최근에 알려지게 된 海州吳氏族圖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제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海州吳氏圖는 海州吳氏의 家系를 後代 子孫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吳光廷의 遺業을 계승하여 1401年 그의 둘째 아들인 吳先敬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 내용은 海州吳氏 家系를 중심으로 그들과 通婚關係를 맺고 있었던 집안의 家系까지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現傳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添錄이 있었으며, 海州吳氏族譜 作成의 기본 資料가 되었다.

이와 같은 海州吳氏族圖는 族譜 出現 이전에 있어서 한 家門의 家系 記錄의 方法과 形式을 알려주는 資料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高麗末 家系記錄物의 性格과 特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圖版 I」 海州吳氏族圖



吳環煥氏 所藏

「圖版Ⅱ」 No.3와 다른 부분과의 筆體

